

하나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 안에 있는 기도하는 교회

성경: 행 1:13-14, 4:24-31, 6:4, 10:9-16, 12:4-14, 13:1-4, 16:23-26, 22:17-21

- I.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 딤페전 2:1-3.
- A.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하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한 후에(딤페전 1:3-4, 18), 기도의 사역이 지방 교회의 행정과 목양을 위한 선결 조건임을 지적한다.
- B.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합당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 C.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 맞서 대항해야 한다 — 삼상 12:23.
- D.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들 안에서 앞장서서 인도하는 이들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 E.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를 훈련한다면 교회는 살아 있고 높여질 것이다.
- F. 너무 많이 말하는 대신에, 심지어 너무 많이 일하는 대신에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
- G. 오직 어떤 일에 대하여 철저히 기도한 후에, 우리는 독립적으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인도에 따라 그 일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 H. ‘중보 기도’에 대한 헬라이어 단어는 개인적이고 비밀을 털어놓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일들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I. “최근에 나의 활동은 휴식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동안 제한받아야 했다. 나는 어떠한 필요에 대하여 들을 때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아마 주님은 나에게 일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하시기 위해 나를 제한시키신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 생활을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공과를 배우기 바란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만일 우리의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우리 지방의 교회는 변화될 것이다.” —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3장 28-29쪽.
- J.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갈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요구된다 — 딤페전 2:4.
- K.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 딤페전 2:8.
1. 손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한다.
 - a. 따라서 거룩한 손은 거룩한 생활, 곧 경건하며 하나님께 속한 생활을 상징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강화한다.
 - b. 손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의 생활은 거룩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생활도 아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유지할 힘이 없게 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도 없다.
 2.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죽인다.
 - a. 화는 우리의 감정에 속한 것이고, 논쟁은 생각에 속한 것이다.
 - b. 기도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려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의 통제 아래서 조절되어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

II.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기도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사도들은 무언가를 하기 원했을 때, 기도로 자신을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들을 채우시며 그들의 전 존재를 적시실 수 있는 길을 그분께 드렸다 — 행 1:13-14, 2:1-4, 16-17상, 4:24-31, 6:4, 10:9-16, 12:4-14, 13:1-4, 16:23-26, 22:17-21.

- A.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그분과 협력할 사람들이 필요하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백이십 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의 헌신’을 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 행 1:13-14, 비교 계 3:18.
- B.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행 4:24-31, 시 2:1-2, 엡 6:10-20.
- C.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은, 특별히 교회와 및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겨냥한 ‘반대 기도들’에 맞서 대항하고 저항해야 한다 — 요 17:15, 마 6:13, 비교 시 31:20.

III.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이 여전히 흐르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 곧 생명의 흐름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 계 22:1, 3, 요 5:17, 마 25:21.

- A. 성경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곧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생명의 샘이신 아들과 생명의 강이신 그 영을 계시한다 — 렘 2:13, 시 36:9상, 요 4:14, 7:37-39.
- B. 흐름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이다 — 계 22:1.
- C. 성경 안에는 오직 한 흐름, 신성한 한 흐름, 주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만이 있다 — 고전 15:58, 16:10, 3:12, 비교 창 2:10-14.
- D. 사도행전은 주님의 움직임 안에 오직 한 흐름이 있으며, 우리는 이 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함을 계시한다 — 비교 행 15:35-41.
 - 1. 오순절날에 시작되었고 모든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오직 한 흐름이다.
 - 2. 교회 역사는 역대로 그 영의 한 흐름만이 항상 흘러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해 왔지만, 모두가 이 한 흐름 안에 있지는 않았다.
 - 3.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일은 짐이 아니라 안식이다. 일하고 짐을 짊어지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 곧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 영이실 때, 일은 하기 쉽고 짐은 짊어지기에 가볍다 — 마 11:28-30, 빌 3:3, 롬 1:9, 고전 15:10.
 - 4.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곧 내적인 흐름에 으뜸의 지위를 드림으로써 우리 속에 이 흐름을 유지해야만 한다 — 겔 47:1, 골 1:18하.
 - 5.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일의 흐름 및 조류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의 타고난 생각에 따라서 하지 말고 그분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한다 — 영한동변찬송가 907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50장).
 - a. “내 맘대로 안 가고 / 주의 인도 좇으면 / 생수 넘쳐 흐르고 / 맘에 빛이 비취네(내가 선택한 곳으로 가지 않고 /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리 / 그곳에 생수 흐르고 / 우리 어둠 낮 되네. 영어 가사 직역)” — 1절.
 - b. “내 스스로 택한 길 / 상을 받지 못하네 / 주의 위임 이뤄야 / 주의 칭찬 받으리(스스로 정한 일 / 주님의 인정 얻지 못하리 /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일이나 / 다만 주님 위해 겸손히 마쳤네. 영어 가사 직역)” — 2절.
 - c. “자아 향해 죽고서 / 주와 함께 살 때에 / 주가 그분 자신을 / 보상으로 주시리(이처럼 우리 죽고 죽음으로 산다네 / 하늘들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 이처럼 우리 섬기고 기도하며 드릴 때 /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큰 보상. 영어 가사 직역)” — 5절.